2011년
7월15일
제 8 호

MBC
mbcsau.com

社友會報

서로 도우며
즐 겁 고
건 강 하 게

• 발행처 사단법인 MBC사우회 10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 TEL 02-722-7416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인 강영구 • 편집인 이연헌 • 편집장 한박무

양주문화동산 단합대회등 상반기행사 성황리 종료

본사, 한우갈비 300인분 친환경빵 250상자 등 대폭지원
등산 낚시 골프 바둑대회 원로문화탐방 모두 마치고 한문 동호회는 열공중

4월20일 등산대회를 처음으로 시작된 올 상반기 사우회 6개 행사가 원로회원 문화탐방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사우회 창립기념일인 5월18일에 양주 문화동산에서 거행된 사우회 단합대회는 176명의 회원이 참석해 풍성한 점심식사와 윷놀이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MBC는 이날 행사를 위해 한우갈비 300인분과 음료수, 친환경 빵 250상자를 지원해 선배 사우들을 격려해 주었다.

사우회 양주단합대회는 여느해보다 많은 176명의 회원이 참석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날 단합대회는 MBC 김재철 사장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으로 윷놀이 행사가 펼쳐져 환호와 탄식속에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는 등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했다.

4명씩 한조를 이뤄 1시간 30분동안 재미와 함께 윷놀이 판을 벌인 결과 노서을(기술),박준하, 박미숙,이은숙(이상관리)조가 우승을 차지해 각각 10만원씩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고

행운권 추첨 1등 이근철, 2등 조성식, 국창섭

올해부터 시작한 윷놀이 행사에 열광
4명 짝패로 30여개팀 불꽃경쟁
윷놀이-노서을 박준하 박미숙 이은숙 조가 우승

박수명, 장우식(이상편제), 이웅재(관리), 정석진(보도)조가 준우승을 차지하고 8만원씩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이에 앞서 실시된 행운권 추첨에서는 이근철(편제) 회원이 영예의 1등에 당첨돼 사우회가 제공한 전자제품을 부상으로 받았고 조성식(업무) 국창섭(편제) 회원이 2등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아 주방용품 한세트 씩을 부상으로 받았다.

등 산 대 회
4월20일 북악스카이웨이 둘레길

올 행사 가운데 첫번째인 등산대회는 4월20일(수) 71명의 회원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북악스카이웨이 둘레길 코스에서 실시됐다.

약 3시간 정도 걸어야 할 만큼 긴 코스였는데도 불구하고 노서을(고문), 한석호(관리), 이현보(업무), 김세중(관리)회원등 80대 4명의 회원이 끄떡없이 완주해 70대 젊은(?) 회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5월에는 낚시대회와 골프대회, 6월엔 바둑대회를 성황리 치뤘고 한문동호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정동 사우회 사무실에서 이건세 훈장 지도 아래 두 시간씩 공부해 격몽요결을 마치고 사마 광의 자치통감을 줄인 통감절요에 도전, 열공하는 등 절차탁마 하고 있다. 2면참조▶

MBC임직원 경조사항, 인사발령 사우회 홈페이지에 알림방 설치

MBC 본사 임 · 직원들의 경조사항과 인사발령 사항을 사우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사우회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총무부와 협의를 갖고 MBC 임 · 직원 경조사항과 MBC인사발령을 사우회 홈페이지에서도 알 수 있도록 두 알림방을 신설했다.

두 알림방은 사우회 홈페이지 '경조사항' 밑에 각각 설치됐다.

내용은 MBC해당부서 직원들이 올리게 되며 사우회 홈페이지 용량을 감안해 1개월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두개 알림방은 6월 29일 함께 개통돼 MBC에 대한 궁금증을 한꺼번에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속방법
홈페이지 접속-좌측메뉴 9번째
'MBC경조사항'
'MBC인사발령' 클릭

▶북악스카이웨이 3시간 둘레길을 완주한 김세중님 등 80대 회원 4명들이 70대 젊은 회원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보냈다.

사우회 총회장소 '이빠네마' 문닫아

그 동안 사우회 총회장소로 이용돼오던 브라질 관광식당 '이빠네마'가 5월말 영업을 중지하고 문을 닫았다.

이에따라 그 동안 '이빠네마'에서 모임을 가져오던 문기회(문화방송기자회)가 6월부터 장소를 광화문 교보문고옆 KT건물 지하1층 해물뷔페 식당으로 옮겼다.

사우회도 새로운 총회장소를 백방으로 물색중이며 매년 송년모임행사를 치뤄오던 기술인 동우회 또한 새모임장소를 찾고 있다.

골 프 대 회

5월13일 충주 중원골프클럽

안재기(보도) 기복없는 실력발휘로 70.6타 우승쟁취
임봉주, 박우정-골찌 윗타수로 행운 감투상

골프대회에서는 안재기(보도) 회원이 첫 우승을 차지했다. 안회원은 매홀에서 기복없는 실력을 발휘한 결과 네트 스코어 70.6타로 우승을 차지했고 이영삼(편제) 회원이 70.8타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정인영(편제) 회원이 홀컵 5m까지 공을 붙여 근접상을 받았다. 임봉주(기술), 박우정(보도) 회원은 같은 스코어로 사이좋게 꼴찌 바로 윗 타수로 행운상과 감투상을 나누어 가졌다.

낚 시 대 회

5월4일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수로

월척 7수 쏟아져
이한익(기술) 41센티 붕어로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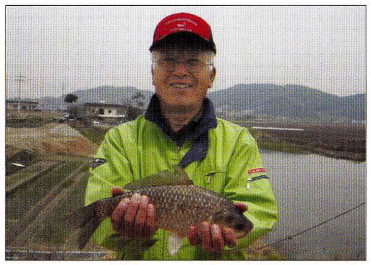
37명의 조사가 참석한 올 낚시대회에서는 월척이 7首나 나오는 등 오랜만에 풍성한 조황을 기록했다.

이한익(기술/사진) 회원이 41cm짜리 붕어를 잡아올려 대박을 터뜨렸는가 하면, 관리부문의 박태환, 김삼랑 회원은 똑같이 33cm짜리 붕어를 잡아 2,3등을 차지했다.

홍진표(관리,32.5cm), 이웅재(관리,31cm) 회원은 월척을 걸어 올리고도 등수에서 밀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웅재 회원은 피라미 12.5cm 짜리를 잡아 행운상을 받고 그나마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한편, 낚시클럽은 올 첫 밤낚시를 7월21(목)~7월22일(금), 아산시 둔포면 봉재저수지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낚시클럽 회원들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다.



바 둑 대 회

6월15일사우회 사무실

A조우승 김경식(편제)
B조우승 장영효(관리)
4점바둑 강자군에 고수들 밀려

5급은 지난해 하반기 대회까지는 A조로 편성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B조 출전 선수가 너무 적어 A조와 숫자를 맞추기 위해 부득이 B조로 편성해서 대국을 가졌다.

1회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한박무(보도,아마5단) 회원과 신해명(관리,1급) 회원이 맞붙는 등 치열한 대국을 벌였으나 고수들이 4점바둑 강자군에 밀리고 A조에서 김경식(편제) 회원이 첫 우승을 차지했고 김영균(관리) 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B조에서는 만년 1회전 탈락으로 불운한 대진운을 탓하던 장영효(관리)회원이 와신상담 끝에 역시 첫 우승을 거머쥐었고 상복 많은 김삼랑(관리)회원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회원은 낚시대회 3등상을탔다.

낚시(33) 강정수 강창우 경진근 권오용(편제) 김병문 김삼랑 김세중 김영균 김종수 김종환 김지현 김휴선 노서을 박찬근 박태환 백하현 송인의 송재선 안호선 이대교 이만우 이승문 이연헌 이웅재 이정오(기술) 이한익 전용립 정대용 정종국(회장) 조동호 최준식 홍순영 홍진표

바둑(35) A(16) 고영일 권오룡(업무) 권혁준 김경식 김영균 김정수 김은식 신해명 임두호 임준석 이대우 이상세 이종성 정태식 최동윤 한박무
B(19) 강진택 김병문 김삼랑 김성기 김세중 김철순 노서을 박종완 유홍철 이창호 임성전 임주완 이한익 장영효 장용택 조동호 최명구 최홍림 홍학표

골프(40) 구자길 권태섭 김규수 김민식 김성옥 김애희 김용빈(회장) 김은식 김종윤 김종현 김창수 김철호 노성석 문정철 박병선 박수부
박우정 박유명 박준하 방준식 신대근 심우승 안재기 유재석 이두표 이상수 임재룡 정경석 정인영 정종국 차종식 최인준 최천 한영희 한웅희

MBC사원이었던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모친상 일시귀국 이승상(미주)회원 감사편지 보내와

1970~1974년 MBC LA지사 파견근무
1985~2008년 KBSLA 뉴스앵커

어머님이 돌아가신 슬픔은 있었지만 사무처에서 배려해주신 여러 가지 협조 덕분에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번 같이 제가 한 때 문화방송 직원 이었다는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 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저만이 아닌 모든 문화방송 사우들이 한결 같이 느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에 3년만에 다시 고국을 찾았는데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에서도 고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 벽촌까지도 깨끗하고 정돈된 화장실 그리고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의 표정은 전에 우리가 보던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기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전된 나라의 대명사로 항상 한국을 꼽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준비 되는대로 이번에 제가 서울 방문에서 느낀 점을 에세이로 적어서 사진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1년 4월20일
LA에서 이승상 드림

고전속의 지혜 [2]

삶은 잠시 빌려쓰는 것

"우리의 生은 본시 빌려온 것, 빌려서 살고 있으니 이 삶은 티끌과 때요, 죽음과 삶은 밤과 낮의 바뀜과 같은 것이다."

生者 假借也 假之而生 生者塵垢也 死生爲晝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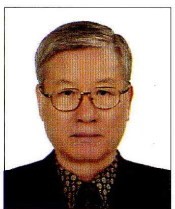
莊子 至樂篇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삶조차 본디 자신의 소유가 아닐진대 무엇이 부족하여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애면글면 애태우며 살아야 하겠는가? 고려말 **이곡(李穀** 1298-1351)도 **借馬說**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人之所有 孰爲不借也라고 말하였다.

미처 백년이 못되는 생애 어차피 빌려 쓰는 것이 이 삶이라면 어떻게 가꾸어 가야할지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ESSAY

'평생 웬수, 남편을 팝니다'



정 진
前 파리 카메라특파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내일 신문 제508호 2011년 5월 20일 발행(주간) 1면 기사 내용입니다.

"남편을 팝니다. 몇 년 몇 일에 어느 예식장에서 구입.

A급인 줄 알고 구입. 구입 즉시 구청에 정품 등록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잔소리도 심하고 성격 차이도 있고 동급에 비해서 음식물 소비는 두 배. 급히 팝니다.

아직도 쓸만합니다.

A/S나 반품 불가. 사시는 즉시 명의 이전해 드립니다. 사시면 덤으로 시어머니도 드립니다."

놀랍다. 하지만 이후 이런저런 사연으로 남편을 팔지 않는다는 기사로 마무리했습니다.

핵심은 한 번이라도 팔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게임소개합니다.

글자판에는 네 글자 천생연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한다.

우리 같이 정답게 오래 산 부부는?

할머니가 금방 '웬수'란다.

아니 넉 자로 된 오래 산 부부는? 또 바로 할머니 왈 '평생웬수'란다. 진실담긴 우스게 소리지만 부인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 남편은 한 순간 '원수'라는데 있다.

왜 그럴까? 그럼 부인들만 탓할 일인가? 그럼 지금부터 그 죄를 조목조목 따져보자.

첫째, 천하제일 직장인 문화방송에 다닌다고 아침 일찍 출근, 퇴근은 시간이 없다.

새벽 4시면 양호, 안 들어간 날도 부지기수다. 술 마시고 포커하고 하남 호텔에서 밤 새워 포커한 사우 명단은 염라대왕이 다 가지고 있다.

둘째, 집안 대소사 나몰라라 부인이 다 감당하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 못하고 참고 산지가 몇 십 년이던가. 학교 학부모 모임에 단 한 번이라도 가 본 일이 있는가?

셋째, 자기는 회사에서, 출입처에서 보내주는 해외 여행 수도 없이 다녔으면서 부인과 손 잡고 제주도라도 한 번 다녀온 일이 있는가?

부인께서 아프다는데 나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 병원 가봐 지갑에서 돈 몇 푼 주고 등 돌리고 야속하게도 나가버린 당신 이런 것들 모두 부부의 도에 어긋난다는 죄명으로 재판한다면 종신형 감인데 부인께서 참고 견디어준 덕으로 그 죄를 유예 받고 있다.

말고도 죄가 수 백 가지나 된다.

지금부터라도 마음 다잡고 사람 구실할 때이다.

옆에서 보라. 안타깝게도 상배한 사우를 보면 기가 팍 꺾여있다. 즉, 홀아비 스트레스 증후군이다.

천하에 보물은 부인이다. 그 분이 바로 천사다.

자, 지금부터라도 마당쇠 입장에서 마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십시오. 돈으로 못 삽니다. 살 데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물도 없습니다.

見盡人間婦　無如美且賢
譬令愚者壽　何不假其年
-漢詩 推句集에서

인간 세상 부인들을 다 보아도
우리 부인 같이 예쁘고 현명한 사람 없더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긴 수명을 주면서
어찌해 우리 집사람에게는 더 못 주는가.

정말 우리 모두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여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그들 남편이 한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문화방송을 일구어 왔다는 것도 인정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모든 사모님께 깊이 고개 숙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오늘만은 이 소인 놈이 건배사를 올립니다. 자 술잔 높이 들고 "사우회 가족 모두 만수무강과 사우 사모님을 위하여 건배!"

천하제일 MBC 다닌다고 막무가내 그 시절 죄는 종신형 감
'지금부터라도 마당쇠처럼 부인을 모십시오 돈주고 못삽니다'

차한잔

"40년 DJ인생 아직까지 방송할 수 있다는 건 행운이죠"

음악 PD & DJ 이 종 환

▶고희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프로그램 구성과 선곡을 직접하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삶이 행복하단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금까지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tbs교통방송 라디오 〈마이웨이〉(매일 밤 10:00~12:00, 95.1Mhz)를 진행하고 있는 DJ 이종환씨. 6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저에게 전적으로 맡겼어요. 저를 믿는다는 뜻이었죠. 구성도 직접 하고 음악 선곡도 100% 제가 해요.

제 역량이 고스란히 방송으로 나타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여기가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저한테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 애정 덕분인지 고희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방송을 하는 시간만큼은 오히려 에너지가 넘친단다. 특히 방송 전 오랜 시간을 들여 직접 선곡을 하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그 날 방송할 음악을 직접 선곡하기 때문에 CD로 다 들어보고 가져와요.

팝송 뿐 아니라 가요, 국악, 재즈, 클래식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곡을 고르다 보니 선곡에 걸리는 시간만 해도 서너 시간은 족히 되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40년 가까이 DJ를 했는데 제 이름을 걸고 아직도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제 주변 친구들은 은퇴한 지 15년도 넘었거든요.

tbs교통방송 〈마이웨이〉 6년째 진행 …수많은 러브콜 거부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감사한 거죠."

'DJ계의 산 역사'라고 할 정도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그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별이 빛나는 밤에〉, 〈이종환의 음악살롱〉을 진행하면서 팝 음악의 산파 역할을 했고 〈여성시대〉, 〈지금은 라디오시대〉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64년에 PD로 입사를 했는데 당시 동아방송에서 최동욱씨가 진행하던 〈탑튠 쇼〉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MBC에서 이에 대응할 만한 프로그램인 〈탑튠 퍼레이드〉를 만들고 적당한 DJ를 물색 중이었죠.

워낙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이를 알고 있던 몇몇 선배들이 저를 추천했더라고요. PD 겸 DJ로 활약하다 결국 DJ의 길을 택했죠. 그게 벌써 40년 가까운 세월이 됐네요."

경력이 오래된 만큼 DJ로서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그는 방송에서 사회적,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대중의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진행하던 2002년에는 보수적인 논조 때문에 '노사모'와 갈등을 겪은 후 방송을 그만뒀고, 〈이종환의 음악살롱〉을 진행하던 2003년에는 '음주방송' 파문으로 자진 사퇴를 하기도 했다.

"저는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광화문 네거리로 데려가 뺨이라도 때려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죠. 이런 식의 사회적, 정치적 발언을 할 때마다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도 있고 '지나치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런 반응에 일희일비하진 않았는데 노사모와 갈등을 겪은 이후 사회적,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음주방송' 논란 당시에도 사실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마신 술이 안 깨는 바람에 방송에서 횡설수설했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 잘못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물러났어요."

CD 일일이 들어보고
직접 선곡 할 때 가장 행복한 시간

유명세 치렀지만
DJ 외에 다른 삶 꿈꿔본 적 없어

유명세를 치렀지만 DJ가 아닌 다른 삶은 꿈꿔 본 적이 없다는 그는 더 나은 방송을 위해 하루하루 치열하게 고민하는 삶이 행복하단다.

"최근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하더라고요. '지금 받고 있는 돈의 몇 배를 더 줄 테니 오라'는 곳도 있었는데 안 가겠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했죠. 〈마이웨이〉를 진행한 지 6년이 넘다보니 여기가 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답사기

12시간의 짧고도 긴 여정

강릉지역 문화탐방을 다녀와서

김 동 진
前 강릉MBC사장

초등 학생들의 수학여행마냥 버스 안은 약간의 흥분과 함께 열기를 느끼게 한다.

MBC개국공신(?)1세대 - 70代 이상의 원로 - 들은 오랜만의 만남에 건강 얘기부터 당시 동료들의 근황,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제들로 꽃피웠다.

"우리 1세대 숫자가 점점 줄어. 이러다간 머지않아 천연기념물(?)이 되겠어" "그 친구 안부 끊겼어. 어떻게 사는지 ....." "그 때 노후 대책이란거 생각이나 해 봤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였지."

얼굴 깊숙이 자리한 검버섯, 지팡이에 의지해야 하는 걸음, 요즈음 자신은 종합병원이라는 한 원로등 세월의 무상함이 짙게 묻어나는 자화상들이다.

6월 21 아침 8시 올해 89세의 노서을(前삼척MBC사장)원로를 필두로 70대 이상의 고령 원로 29명과 사우회 임·직원등 모두 38명을 태운 MBC 본사 버스는 정시에 정동 사우회 앞을 출발, 문화탐방길에 올랐다. 나도 전임 강릉 사장 자격으로 한 좌석을 메웠다.

우리의 버스는 여주.평창을 거쳐 강릉에 도착, 조선시대 대 학자 율곡 이이 선생이 태어난 첫 탐방지 오죽헌에 도착했다.

이이 선생의 모친 신사임당의 친정집이기도 한 오죽헌은 조선시대 양반 가옥으로 주거 건축물로는 가장 오랜 문화재이기도 하다.

강릉 MBC 임무혁 사장 적극지원

한 시간여에 걸친 관광을 마친 원로들은 인근 경포대 앞 횟집으로 자리를 옮겨 임무혁 강릉 MBC사장이 베푸는 오찬장에 도착, 시원한 초여름의 경포대 바다를 보며 소주 한잔을 곁들인 식사를 즐겼다.

싱싱한 생선회와 탁 트인 바다는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 일행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 여행의 피로에는 온천욕이 으뜸.

이어진 속초의 척산 온천에서의 한 시간은 이번 문화탐방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주는 듯했다.

척산 온천은 소문 만큼이나 그 규모나 수질면에서 뛰어난 곳이다. 이어 일행은 풍광이 수려한 미시령을 지나 백담사 입구의 한 식당에서 이 지방 명물인 황태와 더덕으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경 길에 올랐다.

험한 길로 이름났던 이곳 도로는 말끔히 정비되 있어 주변의 빼어난 수려함을 감상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곳이다.

홍천·양평을 거쳐 저녁 8시 동서울 강변역에 무사히 도착, 사실상 일정을 마쳤다. 12시간에 걸친 강행군이었다. 70대를 넘은 원로들에게는 힘든 여정 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생기가 넘쳐 있었다.

경포대 생선회와 소주, 척산 온천은 문화탐방 즐거움을 한층 북돋워
1세대 원로들 생기 넘친건 MBC라는 큰우산을 다시한번 느껴서가 아닐까?

이같은 생기는 어디서 온 걸까? 체력때문? 아니면 즐거움?

M·B·C라는 큰 우산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것 때문은 아닐까?

50년의 역사 속에서 M·B·C는 영광만이 이닌 갈등과 질곡을 겪이 왔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가 그랬듯 갈등 속에서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혼자 되뇌어 본다 'MBC는 하나다' M·B·C도 우리사회와 역사에 크게 기여했음은 누구도 부인 못할 우리의 자부심인 것이다.

끝으로 이번 탐방일정에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본사와 강릉 MBC 임·직원, 그리고 완벽하게 행사를 준비한 사우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강릉지역 원로 문화탐방 – 38명의 원로회원들이 조선시대 일반가옥 건축물로는 가장 오래된 이율곡 선생의 생가 오죽헌을 둘러보고있다.

경조사항

결 혼

장효상(보도) 차남 **4/23**
유조동(관리) 장남 **4/30**
이연헌(편제) 장녀 **5/08**
정진도(전주) 장남 **5/28**
김용빈(기술) 차남 **4/30**
지덕환(관리) 장녀 **5/05**
최영언(보도) 차녀 **5/14**
이인숙(Ann) 딸 **6/05**
김일중(관리) 아들 **4/30**
신원호(기술) 장남 **5/07**
김성희(편제) 차남 **5/21**
이종화(대구) 장녀 **7/10**

부 음

황길수(보도) 모친상 **4/25**
김성기(기술) 장모상 **5/10**
최동윤(관리) 장인상 **6/7**
류재영(편제) 부친상 **6/29**
이하걸(관리) 모친상 **5/04**
최정일(관리) 장모상 **5/23**
채애림(관리) 시부상 **6/10**
김창제(편제) 모친상 **7/08**
김인규(관리) 장모상 **5/6**
권태환(전주) 장인상 **5/23**
이연경(Ann) 부친상 **6/10**

-이명호(미주)회원, 5/2 별세, 향년56세.
1993년에 미국으로 이민, 2009년 8월에 담낭제거 수술을 받은바 있으며 올 2월에 재발한 뒤 3개월만에 별세했다. 시신은 고향으로 옮겨져 5/22 마산연세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김범석(편제)회원, 5/22 별세, 향년 81세.
2010년초에 간암 진단을 받았으나 항암-방사선 치료를 포기하고 생을 마감했다. 지난해 송년의밤 행사에는 딸을 데리고 참석해서 동료-선배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도 해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인사동 R시절 백민이라는 예명으로 '전설따라3천리' '절망은없다' 등 수많은 연속극을 연출해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리기도한 명 연출가였다.

-유희춘(관리)회원, 6월28일(화) 별세. 향년 60세.
2년전부터 심근경색 관련 약을 복용해 왔으며 6월28일 오후 5:00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껴 아산병원 응급실로 옮겨진뒤 입원수속을 밟고 있는 사이에 타계했다.

-이재호(편제)회원, 7월1일 (금) 별세. 향년 74세.
심장관련 질환으로 약을 복용해오다가 2008년 10월22일 부인과 함께 외출도중 쓰러진 뒤 2년8개월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했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운명했다.

-이정언(편제)회원, 7월3일(일)별세. 향년 68세.

-이행영(편제)회원, 7월6일(수) 별세. 향년77세
2년 7개월 전부터 파킨스씨병을 앓아 힘든 노년을 보냈다. 1964년에 입사해 주로 편성부문에서 근무했다. 1980년에 해직됐다가 9년뒤에 복직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경 사

팔순 | 고일환(보도) **7/16**, 이만우(보도) **8/21**, 김영효(편제) **7/17**, 이진희(前사장) **9/13**, 신정휴(前전무) **8/04**

고희 | 심상수(편제) **7/07**, 이병석(관리) **7/25**, 이성해(보도) **8/01**, 윤상도(기술) **9/02**, 이연헌(편제) **9/25**, 김영균(관리) **7/14**, 전지웅(관리) **7/26**, 김동오(부산) **8/02**, 김영호(관리) **9/03**, 편일평(보도) **9/30**, 김 용(전주) **7/21**, 김창천(관리) **7/31**, 금기우(기술) **8/19**, 최양묵(편제) **9/23**

회갑 | 정성만(보도) **7/22**, 김병훈(편제) **9/01**, 최혜숙(Ann) **9/20**, 배귀섭(보도) **8/03**, 정경석(관리) **9/19**, 엄기영(보도) **8/05**, 이양휘(전주) **9/20**

연회비 내신분들

※연회비는 1년에 2만원이며 외환은행 서대문지점 071-13-14297-3 문화방송사우회로 보내주십시오.

평생회비

박정근(편제) **7/07**
최종수(관리) **4/21**
이주갑(편제) **6/07**
윤종선(기술) **7/01**
송재종(보도) **4/08**
안효진(관리) **5/12**
유기철(보도) **6/13**
서경주(편제) **4/14**
정상모(보도) **5/25**
목철수(보도) **6/20**
김만섭(기술) **4/15**
이상훈(관리) **7/07**
백종숙(관리) **6/23**

연회비

4월 권태환(11) 김금봉(12~13) 김대수(전주,11) 김무길(11) 김순배(11) 김성기(12) 김영면(11) 김재현(11) 민홍식(11) 박우용(11) 송재익(10~11) 안영식(04~11) 오남열(11) 윤재민(06~11) 윤호찬(10~11) 이양휘(11) 이재휘(05~11) 이효일(10~11) 임동훈(11) 장경(09~11) 정경태(11) 조한준(11) 주규만(10~11) 진성창(11) 차종식(11) 최영근(11) 최영돈(11) 최영언(07) 최종수(관리,04~10) 표찬일(11) 하광언(11) 한석호(06~08) 홍성기(11~15) 황우성(10~11)

5월 국창섭(10~11) 김선희(11) 김영호(11~15) 김인규(10~11) 김주배(04~11) 김창동(11) 김채영(11) 남궁미(11) 노영인(11) 박민정(11) 박성배(11) 박준하(09~11) 박찬순(11) 박해선(11) 반주원(11) 서동식(14~18) 서상웅(11) 서은선(11) 성하권(10~11) 신명현(09) 신병호(10~11) 신해명(11) 안종순(11) 안주희(11) 오상돈(06~20) 윤여복(12~13) 이경열(06~11) 이명순(11) 이오기(11) 이인숙(11) 이정오(기술,09~11) 이형균(11) 임국희(11) 정영희(11) 최운형(11) 최정일(09~13) 최홍림(11) 최화숙(11) 황경자(11)

6월 고흥복(11) 권오룡(업무,11) 김보영(12~19) 김정수(11) 김창식(10~12) 심재주(09~11) 이연경(09~11) 이원호(11~21) 임정봉(10~12) 장용택(10~11) 전정익(11) 정태성(11) 홍학표(11)

신규입회

4/06 **崔永根(편제)** 010-8563-9406, 02-3462-9406 마포구공덕동371 삼성래미안공덕A 101-1905
4/07 **朴佑用(관리)** 010-9910-5302, 02-789-7890 성동구 마장동 818 현대A 106-304
4/07 **李在甲(편제)** 010-8736-6424, 02-514-8250 강남구 신사동 560-17
4/07 **裵大玩(보도)** 010-5385-3437, 070-4401-7331 강남구 개포1동 경남A 5-402
4/07 **朱哲煥(편제)** 010-3357-5316, 02-722-5316 종로구 사직동 9 스페이스본 101-1006
4/08 **宋在鍾(보도)** 011-384-0077, 02-508-1942 서초구 우면동 57 대림A 104-702
4/14 **徐敬周(편제)** 010-8972-0375, 032-322-7617 부천시원미구상동 사랑마을 1618-302
4/17 **金萬燮(기술)** 010-9105-2122, 031-922-9202 고양시일산서구덕이동382 동양라파크 103-401
5/12 **安孝珍(관리)** 011-669-2933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58-6
5/19 **李衡均(Ann)** 010-3710-5555, 070-7139-5556 성남시분당구야탑동162 한일A 304-702
5/25 **鄭尙模(보도)** 010-5384-0017, 02-3471-4908 서초구서초3동1506-88서초현대홈타운101-802
6/07 **李柱甲(편제)** 010-8887-9425, 02-2633-4632 영등포구 양평동2가 삼성래미안 104-1802
6/13 **柳基鐵(보도)** 010-5384-0034, 02-508-1889 중구 충무로4가 남산센트럴자이A A-2802
6/20 **睦哲秀(보도)** 017-285-6656, 031-896-0056 용인시수지구신봉동 LG자이A 220-1001
6/23 **白鍾淑(관리)** 019-242-1445, 02-2237-8362 중구 신당5동 133-20
7/01 **尹宗善(기술)** 010-8915-2393, 02-3463-4258 강남구도곡2동464 개포한신A 5-106
7/07 **朴正根(편제)** 010-9105-1398, 02-444-3406 광진구 구의3동 546-7 강변우성A 101-403

전화/주소변경

|前사장|
이환의 서초구방배동 805-1 라빌레트 402호

|편제|
고태원 송파구 삼전로4길 3-17
김병훈 010-3647-2506
김성옥 070-4408-5598
서산시 운산면 수평리 산57-2
박성배 010-8915-2429
박영일 010-4722-2665
신종인 010-5386-9350
심상수 010-5369-1322
유수열 010-5374-0052
윤건호 02-418-9060
송파구송파동151 한양A 2-407
이긍희 용산구 이촌1동 LG한강자이A 103-103
최광민 강남구 세곡동 리엠파크 105-102

|업무|
고춘호 010-8631-0931
이창희 은평구신사동6-40 리츠빌 202호

|기술|
임두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613 동부센트레빌 110-801
조태영 010-7117-6917
황선영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567 송정그린빌 111-402

|ANN|
김순환 02-357-4178
은평구 불광동305-22 두진아이브 201호
이연경 강서구 화곡1동 351-89 중앙하이츠 2-905
이인숙 010-3304-1526, 02-3012-1257
정영희 031-891-0834
성남시분당구정자동 정든마을 107-501

|보도|
강성구 화성시 무송동 154-5
김동진 010-5376-2110
김상기(前여수사장) 강남구 역삼2동 728-52 예지향 303호
김정명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경남아너스빌 1410-303
양영철 서초구서초동1682 서초래미안 102-1604
유희근 010-3651-0077
이낙용 010-6201-1871
강동구 암사3동 414-2 강동롯데캐슬퍼스트 A 121-1001
임채헌 010-5201-5590
전응덕 010-3686-0208
정병수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자연데시앙 104-1303
정태성 010-9105-2326
조기양 02-6166-7714
영등포구 여의도동32 수정A B-1408
최남석 010-8440-0002
최원두 010-3851-0800
황길수 010-5206-2592

|관리|
강정수 양천구 신월2동 454-9
김애희 010-5024-0878
김일중 010-8717-4251
김정제 010-3285-8569
박찬근 010-8759-8560
유태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1299 현대밀라트 1차 A-1501
이병춘 010-4175-3960
이유칠 관악구 행운동25-17 궁전맨션 401호
이종세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해피빌 102-401
전한호 010-7752-0135
정인호 과천시원문동 주공A 201-312
조은국 인천시 서구 왕길동 검단자이A 101-602
조혜숙 010-2384-9609
최인준 노원구 상계동 1301 대림A 102-1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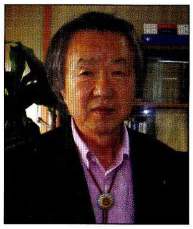
|대구|
박기윤 010-3534-5583

|전주|
권태환 010-8641-1304
김상근 010-7723-8918, 063-224-8918
박홍배 010-7485-1997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416 진북우성A 117-1802

창사 50주년 기획
인사동스토리

방송중독 걸린 사람들의 오딧세이

오 남 철


아나운서
보도국 보도위원

1. 찜통 스튜디오

드라이 아이스 냉방이 웬일인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어느 여름날 오후 어렵게 섭외한 농학박사 한 분이 녹음하러 왔다. 스튜디오가 몹시 더워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한 다음 녹음을 시작했다.

박사의 얼굴은 채 2분도 안돼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원고는 준비됐지만 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몇 번씩 NG가 났다. 서늘한 스튜디오에서 녹음해도 몸 상태에 따라 말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최악의 상태인 찜찔방 같은 데서 녹음을 했으니, 오죽했겠는가?

며칠 후 사장은 스튜디오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농학박사는 사장 친구였다. 그로부터 이틀쯤 지났을까? 스튜디오엔 얼음이 가득담긴 드럼통(미제 석유통을 자른 것)이 몇 개씩 놓였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긴 시간 녹음하는 드라마 스튜디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성우들이 어지럽고 정신이 몽롱해졌다.

처음엔 찜통 스튜디오 탓으로 생각하고 녹음을 계속했지만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닌가? 여러 사람이 얼음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확인된 범인은 얼음이라는 결론이 났다. 보통 얼음이 아니라 드럼통의 얼음은 탄산가스를 압축해 고체화한 얼음 즉 드라이 아이스였다. 그 날로 스튜디오에서 퇴출됐지만 에어컨으로 간단히 해결못한 건 월급걱정 앞섰던 그 시절애환이다.

2. 숙직실과 바퀴벌레

모기는 쳐들어오고 바퀴벌레는 뛰놀고

현업하는 아나운서, 기자, 엔지니어는 나흘에 한번꼴로 숙직을 하는데 여건이 나쁜 건 찜통 스튜디오 못지않았다.

사무실의 선풍기는 하루 종일 혹사당해 밤이 되면 더위를 식힐만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

창문을 활짝 열어 놓는 것은 기본이다. 이때 들어오는 것은 소나기 지나간 뒤의 시원한 바람이 아니고, 하루살이, 모기 그리고 흔히 볼 수 없는 부나비 들이다.

형광등 불빛 주변에 선 이들의 춤판이 벌어진다. 파리약을 뿌려 보지만 완전히 죽이거나 쫓아 내기엔 역부족이다.

밤 11가 넘으면 고참 순서대로 눈을 붙일 수 있는데 명색이 숙직실은 있으나, 그곳에선 잘 수가 없다.

겨우 너덧명 쯤 몸을 누일 수 있는 크기인데, 술마시다 통금시간에 걸려 집에 가지 못한 직원이 큰대자로 누워 이미 코를 골면서 잠에 빠져 있다.

이불은 어떤가? 홋창을 세탁해도 땀 냄새,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냄새가 가시지 않아 코를 괴롭힌다.

이, 벼룩, 빈대, 모기 들은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포식의 대상을 반긴다. 숙직실을 일찍이 포기한 현업자들의 잠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무실 소파나 책상 위가 된다.

점심과 저녁은 주로 사무실에서 해결할 때가 많다. 메뉴는 자장면, 가락국수, 짬뽕이 고작이다.

빈 그릇은 시무실 한쪽 구석이니, 문밖에 내놓으면 식당 종업원이 와서 가져간다. 어떨 땐 다음날까지 빈 그릇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 보기 흉하고 냄새는 바퀴벌레를 부른다.

토실토실 살이 오른 바퀴벌레는 체중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잡으려 들면 단거리 선수 못지않은 빠른 동작으로 책상 밑 틈 시이에 숨어 버린다. 영양가 높은 음식 찌꺼기를 먹어서 일까, 이놈을 잡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은 약으로 박멸할 수 있지만 60년대엔 속수무책이었다.

3. 동일가구 셋방 집

화려한 밤거리 속 초라한 방송국

인사동 초입에는 빠고다가구, 동일가구 등 당시로선 제법 규모가 크고 번듯한 가구 빌딩이 시선을 끌었다.

mbc(그 당시 로고)는 동일가구 4, 5층인데 간판은 초라하고 입구는 비좁아 궁상스러웠다.

주변에 활기 있는 곳은 다방과 중국집 정도, 골동품가게는 우중충하고 생기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석양이 물들고 어둠이 깔리면 오진암, 대하 등 규모가 큰 요정의 청사초롱이 불을 밝히고 (대아에선 스타가 탄생해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탤런트 같은 미녀들이 골목길가게 모퉁이에 하나, 둘 나타나고 거리의 분위기는 화려해 진다.

한참 후, 꽃처럼 화사한 얼굴들은 모두 봉고차에 타고 인사동을 빠져나간다. 이들이 가는 곳은 삼청각 요정이란다. 어디를 봐도 방송과는 썩 어울리지 않는 주변환경이다.

mbc의 초라한 인사동 셋집에 비하면 그 때 KBS는 대하고루였다.

4. 방송중독에 걸린 사람들

가요일번지 mbc이미지 부각 일등공신

인사동 생활의 고된 여정은 시작됐다. 3인 1조 4교대, 나흘에 한번씩 숙직, 한달이면 일주일쯤 책상 위에서 선잠을 자게 된다. 원래 숙직 다음날은 쉬게 돼있는데 그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선배가 맡은 공개 방송을 대신하라는 전화가 걸려오면 눈을 비비며 현장에 가야 한다.

뉴스는 기본이고, 음악프로그램, 공개방송 좌담회, 큰 행사 중계방송, 연말연시 특집방송 등등 감당하기 힘들만큼 넘쳤다.

1960년대만 해도 방송에 미친 사람들이 많았다. PD, 기자, 아나운서, 엔지니어 할 것 없이 프로그램 만드는데는 근무시간이 따로 없었다. 특근을 밥 먹듯이 했는데도 불평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방송 중독에 걸린 그들의 광기덕분에 청취율 1위에서 10위안에 mbc 프로그램이 반 이상 들어 있었다.

정봉하 PD와 본인이 함께 만들어낸 '가요1번지'는 이미자와 남진이 스타가 되면서 신인가수의 등용문이자 인기가요 산실로 자리 잡았고, 청취율 조사에서는 1위 자리를 10년 이상 타 방송에 내주지 않았다.

인사동 시절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만 환갑 넘게 살아 있다. 처음엔 유명 인사를 초대해서 일대기를 들어보는 교양 프로그램(본인이 진행)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청소년 취향에 영합하는 흥미위주로 변신을 했다.

인사동 시절 프로그램을 꼽을 때 당시 mbc를 부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1등 공신이 '가요 1번지' 인데 지금은 '별이 빛나는 밤에' 외엔 언급도 되지 않아 자못 아쉽다.

죽도록 방송하는 것을 생의 보람으로 알고 젊음을 살아 왔던 mbc의 1세대들의 가난했던 시절 얘기가 풍족하게 사는 오늘의 젊은 세대에겐 어떻게 비칠까? mbc는 1969년 8월 인사동 셋방살이의 커튼을 내린다.

9년 가까이 흘린 땀과 고통의 씨앗은 지하 2층 지상 18층짜리 번듯한 사옥에 라디오와 TV방송이라는 새싹이 됐고, 이제는 거목으로 자랐다.

회원동정

김택곤(보도)

김택곤(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前전주방송사장.
4월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회 추천 몫 심의위원으로 추천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광고, 인터넷의 공정성, 윤리성 등을 심의·규제하는 기구이다.

성경환(Ann)

성경환(Ann)
제일비에스 경영자문역
前MBC아카데미사장.
5월11일, 인적관리부문 아웃소싱 전문 회사인 제일비에스(주) 경영자문역으로 선임됐다.

윤건호(편제)

윤건호(편제)
TIMF 앙상블 이사장 취임
前마산MBC사장.
현대음악 전문 연주 단체인「사단법인 TIMF(통영국제음악제)앙상블」이사장을 맡아 지난 6월20일부터 근무한다.
수준높은 젊은 엘리트 음악인 21명 단원으로 국·내외 콘서트 공연 활동을 통해 한국 현대음악 분야에 독보적 기여를 하고 있다.

장명호(편제)

장명호(편제)
인사동클럽 신임회장으로 선출
라디오 부문 모임인 인사동 클럽은 4월 22일 모임을 갖고 장명호 전 감사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총무에는 이채원 전 강릉MBC사장이 선임됐다.

유혜자(편제)

유혜자(편제)
조경희 수필문학상 수상
前한국수필가협회이사장.
5월28일, 수필집「사막의 장미」로 제4회 '조경희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하동근(보도)

하동근(보도)
동국대 언론인 모임 남산 미디어포럼 초대 회장
JEI재능방송사장-前iMBC사장.
6월15일 창립대회를 가진 동국대학교 동문 언론인 모임인 '남산미디어포럼'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손동용(편제)

손동용(편제)
플래누스 상임고문 취임
5월중순, (주)플래누스 상임 고문으로 취임했다.
플래누스는 문화사업 프로모숀 및 부동산개발시 문화산업시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김정호(미주)

김정호(미주)
방송추억과 이민애환 담은 책발간
인사동 시절 음악PD였던 김회원이 방송국의 추억과 미국이민 30년 애환을 담은「머나먼 길 걸어온 나그네」라는 책을 펴냈다. 4월 말에는 사우회 사무처에 들러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만나보고 LA로 돌아갔다.

송재종(보도)

정수열(편제)

조기양(보도)

송재종 前MBC보도본부장 순천향대 초빙교수
정수열 前충주MBC사장 극동대 초빙교수
조기양 前MBC스포츠플러스 사장 극동대 초빙교수
송前본부장은 충남 아산에 있는 순천향 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정前사장과 조前사장은 충북 음성에 있는 극동대학교에 초빙교수로 각각 취임해 오는 9월 학기 부터 강의를 시작한다.

정인영(편제)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주)G마크씨앤씨대표.
G마크 축산물 유통 시장 확대 및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해 5월16일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원주MBC가 함께 합니다
PyeongChang 2018
ALPENSIA
삼성카드
원주MBC
WONJU MUNHWA BROADCASTING CORP.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청산2길
033-741-8114
www.wjmbc.co.kr